

히루젠 고원의 요괴 ‘스이톤’

히루젠 지방의 비공식 마스코트 캐릭터가 된 요괴 ‘스이톤’을 만나러 가보세요. 스이톤이 붉은 입을 딱 벌리고 뱀 같은 눈을 위협하듯 번뜩이며 나무줄기 같은 다리 하나로 균형을 잡으면서 매복하고 있는(장소에 따라 우뚝 솟아 있는 경우도 있다) 모습을 여기저기서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스이톤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므로, 부정확한 생각이나 나쁜 계락을 마음에 품는 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요괴의 이름은 무언가가 공중을 기세 좋게 날아다니는 소리인 ‘스이~’와 내려와서 착지할 때의 타격음인 ‘톤’이라는 일본어 의성어 2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쁜 생각을 마음에 품는 자를 발견하자마자 스이톤은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날아가서 쿵 하고 착지한 후, 눈 깜짝할 사이에 범인을 삼켜버립니다.

대부분의 일본 초자연계 생물(요괴)과 마찬가지로 스이톤에게는 가차 없는 사형집행인으로서의 측면과 지역의 수호자로서의 측면, 2가지가 있습니다. 히루젠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스이톤을 활용해 버릇없는 아이를 겁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주민의 말투에서 스이톤에 대한 아주 큰 애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섬뜩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스이톤의 전설은 현지인이 지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구축해온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우호적으로 대하는 태도(고립된 산간에 있는 마을에서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다지 일반적이지 않다)를 설명할 때 인용됩니다. 나쁜 마음을 몰래 간직한 자는 날아온 요괴가 재빠르게 죽어버리므로, 히루젠의 시민은 통행이 허용된 여행자가 분명 모두 평화로운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무사히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방문하시는 분은 스이톤이 작은 장식이나 키홀더가 되어 있거나, 현지 레스토랑 밖에 세워져 있거나, 더 나아가 고속도로의 IC를 빠져나온 곳에 바로 거대한 토tem 폴처럼 우뚝 솟아 있는 것을 목격하실 것입니다.